

## 神楽公演の感想

先日、学校の先生から『江戸里神楽公演』観劇のお誘いを頂き、私にとっては日本に来て以来、初めての貴重な体験となりました。全然知識がなかったので、隣にいる先輩に「里神楽って何ですか？」と聞いたところ、「いわゆる、庶民の歌舞伎ですよ。」と教えてくれました。私は歌舞伎も今まで見た経験がなく、期待と緊張が高まる中、いよいよ公演が始まりました。

最初に奉幣の舞。

ゆっくりとした優雅な動きがとても美しく厳粛で、鈴を簡潔に振るのも単純なように見えたのですが、見ているうちにだんだんその中に引き込まれ、何とも言えない敬虔で厳かな気持ちになりました。

そのあとに続いた、紅葉狩と根国試練は物語になっており、わかりやすく興味深いものでした。コミカルな場面も随所にあり、笑える場面も多く、非常に楽しく見ることができました。

いよいよ最後の演目。

始まる前に司会の方から「お面が一瞬のうちに変わるので、注目して見て下さいね」と説明がありました。もしかしたら、お面が変わる瞬間を見られるかもしれない、と目を大きくして注意していたのですが、そのスピードはまさに驚異的なものであり、正直、ついていけませんでした。

今回の会場では外国のお客様もたくさん観劇されており、伝統文化を大切に守り、真摯にそれを伝えていく日本の姿勢を痛感しました。最近、韓国に帰ると、韓国は欧米や他の国々の影響を強く受け、韓国独自の文化や伝統を軽視しがちな傾向を感じる時があります。日本に住んで感じるのは、日本独自の文化や伝統を世界に幅広く発信している点の素晴らしさです。韓国の若者も、もっと自身の国の文化や伝統を誇り、広く発信していく努力が必要だと改めて感じる有意義な1日となりました。

(韓国留学生・D. J)

최근,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에도사토카구라자카』를 보러가자는 제의를 받게 되어, 일본에 온 이후 『에도카구라자카』를 처음으로 접하는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지식이 없었던 저는 옆에 있는 선배에게 「사토카구라가 뭐예요?」라고 묻자, 「서민들의 카부키라고 할 수 있죠.」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직접 카부키를 본 경험이 없기때문에, 기대감과 긴장감에 부풀어 있었고,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호우헤이노 마이.

느리고 우아한 움직임이 아름다우면서 엄숙하고, 방울을 간결하게 흔드는 것은 단순하게 보이기도 했지만, 보고 있는 중에 점점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듯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경건하고 엄숙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계속된 『모미지카리』와 『네노쿠니시련』은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알기 쉽고 흥미로웠습니다. 코믹컬한 부분도 여기저기 있고, 웃음을 자아내는 장면도 많아 꽤 재미있게 볼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공연

시작하기 전에 사회자가 「탈이 순식간에 바뀌니까 주목해서 봐 주십시오」라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혹시나 탈이 바뀌는 순간을 볼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눈을 크게 뜨고 주의 깊게 보았지만 그 스피드는 가히 경이로워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공연장에는 외국인 관람객도 많은 걸 보고 전통문화를 소중히 지키고 전심으로 전달하려는 일본의 자세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요즈음 한국에 돌아가면 아메리카등 서양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서 한국의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경시하지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일본에 살면서 일본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것은 일본이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세계에 폭넓게 알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도 좀

더 자국의 문화와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폭넓게 알릴 수 있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하루가 되었습니다.